

관객과 호흡...작은 공간이 주는 특별한 감동

공연일변지, 광주아트홀, 광주디엠홀, 민들레소극장, 씨어터연바람 등 지역에는 작은 공간에도 불구하고 '큰 감동'을 선사하는 다양한 소극장들이 자리하고 있다. 무대와 객석의 거리가 가깝기에 배우들의 호흡까지 느낄 수 있는 이들 공간은 대규모 극장과 다른 감동을 남긴다.

광주 전역에 흩어져 있는 광주 소극장협회 소속 극장들과 ACC어린이극장, 미로센터 등이 협력해 '제27회 광주소극장축제'를 개최한다. 오는 9월 24일부터 10월 20일까지 기본종은극장, 문예정터, 예술극장동, 지니아트홀 등에서 진행.

이번 축제는 지역극단 총 13개 팀이 8개 소극장에서 샌드아트,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 공연을 상연할 예정이다. 매 회차마다 각기 다른 작품으로 관객들을 만나게 된다.

광주시 전문예술단체인 극단 논다의 코믹 연극 '당신이 집을 비운 사이'는 9월 27일부터 10월 20일까지 기본종은극장에서 약 한 달간 장기공연을 선보인다. 9월 27-29일 및 10월 20일까지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6시에 진행. (10월 5일은 오후 4시 30분, 7시)

작품은 한 고급빌라에 도둑이 들지만, 갑자기 들려오는 인기척에 어딘가에 숨으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았다. 도둑은 집주인인 국회의원의 예상치 못한 비밀들을 목격한 뒤 사랑, 오해, 거짓말의 소

'제27회 광주소극장축제'

9월24일부터 연극·뮤지컬 등 무대 문예정터 등 8개 극장 13개팀 참여

ACC재단 '베세토페스티벌' 연계

용돌이에 휩싸인다.

박종우청소년극장작소의 '세대소통 락뮤지컬 빨간기타'는 10월 3일 ACC어린이극장에서 총 2회 (오후 2시, 5시) 만날 수 있다. 아빠와 딸의 꿈과 기억이 바뀌어 서로를 알아가는 스토리로 세대 간 갈등과 소통,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주제를 담은 휴먼감성 락뮤지컬이다.

10월 5-6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에는 ACC 어린이극장에서 샌드아트 공연과 매직 공연이 펼쳐진다. 샌드아트월드가 출연해 '빛과 모래가 들려주는 음연동화'라는 주제로 어린이들의 감수성을 자극한다. 또 극단 DIC의 환혼 사랑이야기를 다룬 연극 '늙은 부부이야기'는 10월 17-19일 공연일변지에서 볼 수 있다.

극단 그림일기의 극 '두마이 태만'도 10월 12-13일 공연일변지 무대를 수놓는다. 오직 돈만 좇는

삼류 인생 '두마이' 과 촉망받는 신인왕이었으나 경쟁력 없는 복서가 되어버린 '태만' 두 쌍둥이의 이야기를 다뤘다.

부모와 자식 간의 애증의 마음을 극에 투신한 '사랑입니다'는 극단 '마음같이'의 작품이다. 갈등의 골을 만들어가면서도 서로 반복할 수 없는 가족의 본질에 대해 성찰하는 연극이며 10월 5-6일 미로센터 무대에 오른다.

그 외 극단 지니컬쳐의 로맨틱코미디 '우리집 세

입자'는 오후 7시 30분(평일), 오후 3시, 6시(주말) 지니아트홀에서 볼 수 있다. 극단 시민의 '오차'는 10월 5-6일 문예정터에서 오후 3시에, 나래아트컴퍼니의 '땡기머리'는 10월 12-13일 오후 3시, 7시 관객들을 만난다. 극단 유포씨어터의 코믹극 '스위트룸 719'는 10월 5-6일 토요일 오후 7시, 일요일 오후 3시, 7시에 진행된다.

이외 협력작품으로 울산씨어터의 '양팔저울'은 10월 11-12일 미로센터에서 선보인다. 예시공프

로젝트 제즈밴드의 레퍼토리를 감상하는 특별한 자리는 오는 29일(오후 2시, 5시) 광주아트홀에 마련된다.

한편 이번 축제는 ACC재단에서 주관하는 '제28회 베세토페스티벌(한·중·일 축제)'과 연계해 오리지널 작품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임흥석 광주소극장협회장은 "광주 소극장축제는 지역 극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소극장이라는 공간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축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이외 클래식·재즈 관객들을 위한 공연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준비했으니 관객들의 많은 관심을 기다린다"고 했다.

관람료 각 3만원, 티켓링크 예매. /최윤희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 소극장협회가 9월 27일부터 한달 여간 지역 8개 소극장에서 '제27회 광주소극장축제'를 개최한다. 극단 논다의 '당신이 집을 비운 사이' 공연 장면. <광주소극장협회 제공>



물결에 따라 변화하는 풍경들

기술기 '다이얼로그' 전, 9월16일까지 포도나무 아트스페이스

사전적 의미의 '다이얼로그'는 대화하다, 또는 대화를 일컫는다.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존재하며, 인간의 존재 요건은 타자와의 소통이다.

기술기 작가는 사진을 주요 매체로 활용하며 그것의 재현성과 한계를 탐색하는 작품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사유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확장한 오브제들을 조합, 자신만의 세계를 표현해왔다. 대화의 가능성, 소통의 한계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의도로 일한다.

기술기 작가 '다이얼로그: 경계인간' 전이 포도나무아트스페이스에서 오는 9월 16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고 H ZONE가 기획, 운영을 맡았으며 2024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 일환으로 마련됐다. 차세대 유망작가를 소개하고 시각예술의 선순환적 발전을 모색하는 취지다. 기술기 외에도 람한, 신교명, 오제성, 윤향로, 이병호, 한석현 등 모두 7명이 참여했다.

포도나무아트스페이스에서 전시를 여는 기술기 작가는 책, 비디오, 사진 등을 매개로 작품을 확장한다. 물 표면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는 작업이 주가 된다. 물 표면에 비친 하늘과 풍경은 전적으로 물결에 따라 이미지를 변환시킨다. 작가에 따르면 '왜곡'이 발생하는 것이다. 카메라는 순간적인 이미지를 포착 있는 그대로를 보여줌으로써 주관화 가능성을 차단한다.

작품의 화면은 모두 세 개의 층위가 뒤섞인다. 물에 비친 내 모습, 배경이 되는 하늘과 주위 풍경, 물 표면을 표류하는 미세한 부유물이 그것. 작가는 '카메라는 물을 사진의 피사체로 삼아 물의 표면에 그 표면에 반영되는 이미지, 그리고 투명한 물결로 인해 그 속까지 훤히 드러나는 물의 실체성에 초점을 맞춘다'고 전했다.

기 작가는 올해 '우리: '소년이 온다'를 읽다' 전



'다이얼로그:경계인간'

을 통해 지역에 소개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하늘 아래 두 개의 망막과 하나의 렌즈'전을 통해 관객들을 만났다.

한편 포도나무아트갤러리 정현주 박사는 "기술기 작가는 그동안 다면적이고 밀도 높은 사진 작품으로 지역에 소개돼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며 "다이얼로그: 경계인간"이라는 주제는 복잡다단한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존재와 소통, 경계 등 다각도의 사유를 하게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의 힘 '전국 계간문예지 축제' 진도서 열린다

계간열린시학, 강연·우수작 시상 등 24~25일 시에그린한국시화박물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문학 출판계는 역사 이래 최대 불황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문학을 하기는 더 어려운 시대이고, 문예지를 만들기에는 더더욱 어려운 시대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문학의 한 길을 가는 작가들이 있다. 문예지를 만들어 문학 세계를 일구는 문학인, 출판인들이 있다. 전국 계간문예지 축제가 진도 시에그린한국시화박물관에서 열려 눈길을 끈다.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계간 열린시학(주간 이지열)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기념 강연을 비롯해 계간지 우수작품상 시상식, 편집자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번 편집자대회를 주관하는 이지열 열린시학 주간은 '시(書)·화(畵)·창(唱)·무(舞)의 본고장인 진도의 참 멋을 전국 문학인들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진도에 새로운 인문학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했다'며 문학인들이 진교를 나누고 함께 문학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이번 대회 주제는 '詩, 진도의 소리와 그림을 품다'. 참여 문인들의 작품을 시화로 제작하고 동시에 전시회도 개최해 시를 매개로 콘텐츠를 확장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참여문예지는 '다충', '리토리아', '문예연구', '미네르바', '시와사람', '시와정신', '열린시학' 등이며 참가자는 문예지 발행인을 비롯해 편집인 편집주간, 문예지 회원 등 100명 내외다.

전국계간문예지편집자회의는 지난 1999년 '다

충'이 제안해 전국에서 발간되는 문예지 7개사의 편집자들이 모여 결성했다.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제고하고, 문학 활성화를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이후 매년 각 회원사의 거점 도시에서 전국계간 문예지축제를 개최해 해당 지역의 문화적 분위기를 고양하고, 문학 활성화를 도모해 왔다.

이번 행사는 2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최한선 전남도립대 명예교수가 '남도 문학의 특색'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어 아리랑전승음악회의 공연, 제11회 계간지 우수작품상 시상식 등이 진행된다.

오후 7시 30분에 펼쳐지는 전국계간문예지편집자회의는 문예지 방향을 비롯해 문학과 인문학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농군들 품앗이 하며 '여어루 상사뒤여~'

전통문화관, (사)용전들노래 보존회 초청 24일 서석당

농군들이 함께 모여 불렀던 '들노래'는 피로를 덜어내고 노동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 옛 선조들의 농경 품앗이 문화가 담겨 있는 이 노래는 1960년대까지 구전되다가 맥이 끊겼으나, 1999년 광주시 북구에서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 일환으로 복원됐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웅) 전통문화관은 무형유산 (사)용전들노래 보존회를 초청해 공연 '여어루 상사뒤여~'를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 펼친다. 전남무형유산 제17호 우도농악 설장고 보유자 김동연과 지춘상(전남대) 명예교수 등의 고증을 거쳐 복원한 '용전마을 들노래'를 현

대에 만나는 자리다.

'오위 소리'로도 불리는 '모판 만들기'로 시작하는 이번 공연은 모찌기(먼들 소리), 모심기(상사소리), 초벌매기(마뒤여 소리) 등으로 이어진다.

초벌매기 이후 물을 손으로 저으며 매는 '두벌매기'를 비롯해 만드리(당실로), 논두렁 노래와 장원질, 부포놀이 및 북과 장구의 시나위로 신명나는 무대가 채워진다.

쇠소리는 정영을이, 장구반주는 이은영이 맡는다. 설장구에 진준한·진은호, 진도북춤에 이정석, 농부 역에 김도례 외 8명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한편 용전들노래보존회는 1999년 제2회 광주



무형유산 '용전들노래보존회'의 공연 장면.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제공>

시 민속예술대축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제40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종합우수상(국무총리상) 등을 수상했다. 2014년 광주시 무형유산 22호로 지정을 받아 현재 용전마을 사람들이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무료 공연.

/최윤희 기자 rubi@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